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1년도 제45호

### 서울특별시체육회 블로그

#### ‘인권의 날’을 기억하는 방식

홍덕기 경상대학교 교수

###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규정 재정비

####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개혁’ 본격화... “징계 논란 뿌리뽑는다”

정형근, 배정호, 박대현 SPOTV NEWS 기자

### 스포츠정신 퇴색

#### 체육학도들 ‘별났다’...시·군·구 체육회 ‘정치적 발판으로 전락’ 비난 토론 ‘붓물’

이민 더팩트 기자

### 스포츠폭력

#### 야구 학폭문제, ‘제2의 안우진-김유성’의 길 막을 수 없는 이유

박연준 MHN 스포츠 기자

### WTA

#### 세계여자테니스협회가 1조원 손실 보면서도 지키려 한 가치는?

이현정 부산일보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국제 스포츠 인권 정책 사례와 의미

올해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1948년 채택된 이후 73주년이 되는 해다. 우리나라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정하고 있다. 본고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및 '인권의 날'을 맞아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글 · 홍덕기



### 북미의 스포츠 인권 정책 사례

2016년,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한 일간지의 보도로 전대미문의 스포츠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체조 국가대표팀 주치의였던 래리 나사르(Larry Nassar)가 치료를 빌미로 수십 년 동안 260여 명의 여자 체조 선수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성적 학대로부터의 젊은 피해자 보호 및 안전한 스포츠 기구 설립에 관한 법'(protecting young victims from sexual abuse and safe sport authorization act of 2017)을 제정했다. 그리고, 이 법에 근거해 스포츠 분야의 독립된 인권기구인 '세이프 스포츠 센터'(U.S. Center for Safe Sport)가 설립됐다. 세이프 스포츠 센터는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요구권을 가지며, 조사를 거부하거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단체의 재정 지원을 중단시킬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른 이행 조치와 실질적 권리 구제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한편 캐나다의 경우, 2019년 스포츠 분야의 성적 괴롭힘, 학대, 차별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는 '스포츠 분쟁 조정센터'(Sport Dispute Resolution Center for Canada)를 설립했다. 또한 과학체육부 주도로 스포츠 분야 성 평등 증진을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스포츠 성폭력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캐나다의 스포츠 행동 강령인 '스포츠에서 성적 괴롭힘, 학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붉은사슴 선언'(red deer declaration for the prevention of harassment, abuse and discrimination)은 스포츠 선수들이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 유럽의 스포츠 인권 정책 사례

영국은 2001년부터 스포츠 분야 아동보호 기구인 CPSU(Child Protection in Sport Unit)를 운영 중이다. CPSU는 24시간 온라인 및 무료전화 등 긴급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별 맞춤형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리고 2002년 '스포츠에 참여하는 아동,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표준'(standard for safeguarding and protect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sport)과 2004년 '스포츠 분야 평등 증진 정책'(equality standard: a framework for sport)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여성, 장애인, 인종적 소수집단 등 소외된 사람들의 스포츠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스포츠 참여 가치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으로 노르웨이는 2000년부터 스포츠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스포츠 성폭력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 행동 지침과 보고 및 대응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의 경우, 2015년 '스포츠 및 신체 활동 증진법'(act on promotion of sports and physical activities)을 제정하여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서 차별금지와 성 평등의 원칙에 기초해 스포츠 및 신체 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제 스포츠 인권 정책이 주는 시사점

국제 스포츠 인권 정책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인권침해 실태 고발'이다. 스포츠 선진국의 경우라고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인권침해 사건의 발생 이후 이들의 대처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래리 나사르는 175년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는 이를 '우리는 영원히 어리지 않다'(Athlete A)라는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스포츠 성폭력의 참혹한 실태를 고발했다.

둘째, 스포츠 인권침해의 '보호'와 더불어 인권 '증진'의 관점을 통합적으로 취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엘리트 스포츠 관계자의 맞춤형 인권 교육 및 훈련 상황별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아울러 신체 활동 및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초점을 둔다.

스포츠는 성과 달성을 위한 수단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여러 선진국에서 스포츠는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전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스포츠 인권을 예방, 보호 및 존중하고 증진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스포츠 선진국의 사례처럼, 한국 사회 스포츠 분야에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인권의 날'을 기억하는 또 다른 방식 아닐까.

---

글을 쓴 **홍덕기**는 스포츠교육학 전공으로 미국 노던 아이오와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경상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며 한국 스포츠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라톤을 좋아하며, 스포츠·교육·인권에 대해 관심 있다.

# [단독]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개혁' 본격화 “징계 논란 뿌리뽑는다”

대한체육회가 논란을 빚고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규정 전반에 대한 재정비에 나섭니다. 징계 기준 세분화와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공정위 개혁'에 돌입합니다.

스포츠공정위는 체육회 정관에 따라 국내 체육인의 징계와 포상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를 비롯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와 시군구 종목단체까지 고려하면 셀 수 없이 많은 스포츠공정위가 존재합니다.

그동안 스포츠공정위의 '징계'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 초 도마 위에 오른 보성고 아이스하키부 감독의 '폭행' 사건과 수원 모 중학교 하키부에서 일어난 미성년자 폭행·폭언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각 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 심의에 회부된 두 지도자는 각각 영구제명과 자격정지 3년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징계 관할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 처리했습니다. 시·도체육회에서 이 사건을 다시 다룬 결과 영구제명은 자격정지 3년으로, 자격정지 3년은 1년으로 크게 감경돼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결코 드물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스포츠공정위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징계 관할을 재지정할 때 최초 징계가 감경되는 일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탓에 징계 관할 기준과 양형 기준을 더 명확히, 더 세분화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 10월 국정감사]

“올해 대한체육회에 재심 신청이 들어온 건 중 '징계절차 하자'로 파악된 것이 19건이다. 19건 중 7건의 재징계가 끝났는데 놀랍게도 7건 모두 최초 회원종목단체에서 징계한 양형보다 감형됐다. 아이스하키의 경우는 최초 영구제명을 받았던 지도자가 자격정지 3년으로 징계가 줄었다. 시·도연맹 체육회에서 또 '제 식구 감싸기'식 씩어빠진 관행대로 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도 스포츠공정위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이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 / 10월 국정감사]

“아무래도 연고주의가 생긴 것 같다.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과 엄격한 관리를 통해 바로잡아 나가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양형이나 관할권 문제를 명확하게 세분화해서 정리할 계획이다.”

다음 장 계속

대한체육회는 국정감사를 마치고 빠르게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스포티비뉴스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체육회는 스포츠평정위 징계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은 물론 시도 종목단체 임원과 운동부 징계 관할 명시 조항 등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체육단체에서 '정확한 기준'을 근거로 공정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혐의 발견 시점에 스포츠평정위가 구성돼 있지 않은 단체는 재심의 기관인 시도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규정을 다듬었습니다.

학교 운동부 징계 관할도 더 명확히 했습니다. 시도위원회가 1차적으로 징계를 처리하되, 전국대회 및 국가대표 지위 관련 비위는 종목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향으로 수정했습니다. 징계 유형과 양형 기준을 세분화한 점도 눈에 띄입니다. 폭력을 저지른 지도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세부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폭력과 금품 수수, 승부조작 등 기존의 징계 행위 유형을 10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폭력의 경우 폭행 정도에 따라 극히 경미-경미-중대로만 나누던 것을 최대 12개의 구체적인 사례로 '자세히 나눠' 적시했습니다.

예컨대 '중대한 수준의 폭행'으로만 다소 모호하게 기재돼 있던 기준을 운동기구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경미한 경우라도 2회 이상 폭행한 경우 등 7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2회 이상 폭행을 저지르면 중대한 경우의 폭력에 해당돼 즉시 영구제명됩니다.

대한체육회는 "시도체육회 등 체육회 산하 징계 심의 기관이 재량권을 남용해 지나치게 처벌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없도록" 이 같은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유형과 기준이 상세히 분할되면서 심의 기관의 재량적 판단 여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고무줄 징계' '널뛰기식 징계'가 확연히 감소할 것으로 체육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징계 관할을 세분화한 것에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전에도 징계 관할 규정은 존재했지만 수많은 단체가 정확한 징계를 내리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양정 기준이 세분화되고 명확한 기준으로서 가해자들을 징계할 수 있게끔 되었던 것이 가장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세분화하더라도 담당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면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에서 이번에 잘 받고 왔지만 추가적으로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이런 실수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의원은 체육계 특유의 폐쇄적인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스포츠평정위 문제는 반복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태를 조사하고 정보공개 범위도 지금보다 훨씬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사실 구조 개선이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체육계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작년 국감이나 올해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더니 제식구 감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해도 그냥 이렇게 우리 사람이니까 좀 적당히 하고 넘어가자...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좀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다."

한 종목단체의 스포츠평정위원은 공정위원회 구성 자체부터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제식구 감싸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 스포츠평정위원]

"시·도 체육회나 각 회원종목단체의 스포츠평정위가 부적절한 징계를 내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스포츠평정위원을 구성할 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넣어두고 제 입맛에 맞게 징계를 내리는 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용기를 내 신고한 피해자들만 다시 2차 피해를 보게 된다. 스포츠평정위에서 중징계를 요청해도 징계를 내리는 기관은 결국 스포츠평정위다. 심한 폭행이 있어도 스포츠평정위에서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스포츠 바닥은 좁다. 인맥이나 지연이 통하지 않는 상위 단체에서 징계를 내릴 필요가 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평정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억울한 피해 선수가 없도록 앞으로도 규정을 다듬고 징계를 강화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체육학도들 ‘붙났다’...시·군·구 체육회 ‘정치적 발판으로 전략’, 비난 토론 ‘붓물’

더팩트  
이민 기자

2021.12.03



○선수대기실을 안동시체육회장 집무실로 개조



안동시체육회가 언론보도를 통해 밝힌 체육회장 집무실 도면.(사진 위), 체육회장 집무실에서 여자탈의실, 여자사위실,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유일한 유리문(사진 아래 왼쪽), 여자탈의실에서 유리문을 통해 보이는 체육회장 집무실에서 안운호 회장이 쇼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있다.(사진 아래 오른쪽)./안동=이민 기자

"전국의 시·군·구 체육회가 본래의 취지인 스포츠정신은 뒤로하고, 어느 순간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기 위한 발판의 한 수단으로 전략되고 있다"

내년 대통령선거는 3개월, 지방선거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 안동의 한 대학교 체육학과 학생들이 강의시간 토론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 장 계속

3일 해당 학과 학생들에 따르면 최근 스포츠사회학 관련 토론과 주제 발표에서 다수의 학생이 지역별 체육회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전문 체육인을 육성·보급하는 단체가 어느덧 정치인을 양성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 한 학생은 "정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체육회의 인맥으로 정치인이 되는 것은 부당하며, 인맥으로 뽑힌 정치인을 어떻게 믿느냐"며 "안동시 체육회장의 경우 민선 체육회장으로 당선된 후 2년도 안 돼 안동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것은 체육인으로서 자격 미달이다"고 지적했다.

다른 학생은 "안동시 체육회의 한 사무장의 말을 빌리자면 '안동시장에 출마한 사람이 시장이 되기도 전에 나쁜 짓을 했다. 시장이 된다면 이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는 거냐'라고 말했다"면서 "체육회장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면 어느 정치인과 다름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들 앞에서 착한 행동을 하고 뒤에서는 추악한 행태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체육행정의 수장을 책임진다면 2년 전 출사표를 던져 당선된 안동시 체육회장은 2년도 안 돼 체육행정 전체를 통달해서 이제는 시장에 출마해 정치도 하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특히 한 여학생은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안동시체육회장 집무실이 수천만 원의 혈세를 들여 여자선수 대기실을 개조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체육회가 밝힌 도면을 보면 여자선수들이 여자탈의실과 여자샤워실,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안동시체육회장의 집무실을 통해 하나밖에 없는 유리문을 통과해 이곳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성인지 감수성'조차 없는 사람이 체육행정은 고사하고 정치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 고학년 학생은 "체육회 정관이나 법률로 정해진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체육회 단체장 임기 후 5년간 지자체 단체장 입·후보 금지법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근 안윤효 안동시 체육회장은 언론을 통해 "'아니면 말고 식'의 사실 확인 없는 기사는 지금까지 노력한 수많은 체육인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에서 요청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 사실 그대로 소명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안동시체육회는 회장 집무실을 통해 들어가야 여자탈의실과 여자화장실이 있다. 체육회장 집무실을 만들면서 여자화장실에 돌연 샤워기도 설치했다.(사진 아래 오른쪽)./안동=이민 기자

# 야구 학폭문제, '제2의 안우진-김유성'의 길 막을 수 없는 이유

대구의 모 고교 야구부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학폭 가해 선수가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사실이 밝혀졌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관계자는 "금년 1학기에 2학년 A 군은 1학년 후배 6명을 대상으로 욕설과 머리 박기(일명 원산폭격) 및 신체를 가하는 폭행을 수차례 했다"라 밝혔다. 또한 A 군이 1학년 야구부원 B 군에게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폭행하고 글러브 등 야구 장비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는 등 지속적인 폭행 경위가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9월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알려졌으며, 학교 측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피해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학폭위를 열지 않고 가해자 A 군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장 자체 처리를 하는 경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할 경우 학교장은 처벌보다는 교육지도 측면에서 학폭위 개최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폭행경위가 들어났을 때는 학교장 자체 처리가 아니라 학폭위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학폭위를 열지 않고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 것은 봐주기 식의 의심스러운 조치이다.

지난 2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 의결하여 학교 폭력 가해자는 무관용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KBO는 신인 드래프트 신청 서류에 생활기록부를 제출을 요구하여 학교폭력이 있을 경우 신인 드래프트 참가를 못하게 막는 일명 '김유성 법'을 시행했다. 이번에 발생한 대구 모 고교의 학폭위 없이 다른 학교 전학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학폭위 징계가 있을 경우 프로 진출 및 대학 진학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며, 학교장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심에 자유롭지 못하다.

폭행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작년에도 유사한 폭행사건이 있었으나, 학폭위 없이 학교장 자체 처리 이후 가해학생들에게 '70일간 야구부 참가 제한'이라는 경징계를 내렸으나, 당시 피해자였던 선수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야구를 그만두었다. 봐주기 식의 미흡한 폭행 처리가 폭행을 해도 괜찮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키움 히어로즈 안우진의 고교 시절 폭행 사건이 출전 정지라는 징계로 면죄부를 받게 되고, NC 다이노스 1차 지명을 받았으나, 중학시절 폭력 행위로 지명이 철회되고 고려대에 입학하여 내년 얼리 드래프트로 다시 프로에 도전할 수 있게 된 김유성 사례가 존재한다. 결국 '야구 실력이 월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도안되는 어록이 탄생하게 되었다. 학교 운동부 폭력 가해자에게 무관용을 하겠다는 교육부의 공염불 대신 실질적으로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직도 운동부에 남아 있는 선배가 후배들에게 규율을 어겼다는 사유 등으로 가하는 폭행이나 폭언이 당연시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폭위 없이 학교장 자체 처리한 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윤리센터에게 사실 관계를 통지하고, 학교장 자체 처리가 적법한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학교 폭력을 했을 경우 피해자의 용서 유무와 관계없이 운동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켜 한국 아마추어 스포츠계에서 반복되고 있는 운동부 폭행 사건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 체육이 장애인 인식 개선 촉매... ‘#WeThe15’ 펼친다

국민일보  
권중혁 기자

2021.12.03



## #WeThe15

WE'RE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15% OF THE WORLD.

지난 8월 일본 도쿄의 스카이트리,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 영국 런던의 런던아이 등 전 세계 120여 랜드마크가 ‘보라색 조명’으로 물들었다. 보라색 점등은 향후 10년간 장애 차별을 종식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을 향상하기 위해 2020 도쿄 패럴림픽 개최식을 앞두고 시작된 #WeThe15(위 더 15) 캠페인의 상징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 세계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인 #WeThe15에 동참한다고 2일 밝혔다. #WeThe15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와 글로벌 비정부기구 국제장애인연합(IDA) 유엔문명간연대(UNAO) 유네스코(UNESCO) 등 20여개 기관이 주관하는 세계적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이다. 숫자 15는 세계 장애인인구 비율 15%(약 12억명)를 상징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체육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체육활동을 통해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WeThe15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다.

정진완 회장은 “체육활동이 장애인식개선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부와 민간기업, 개인과 단체 모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WeThe15 캠페인은 전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2억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종식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바꿀 전지구적 연대 운동입니다. #WeThe15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연합, UNAO, 유네스코 등 인권, 장애, 스포츠,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단체와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협력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는 인간 다양성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당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동참해주세요. 2022년 3월, 세계인구의 15%인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대회(2022년 3월 4일-13일)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으로 15%의 장애인을 포함한 전 세계인이 행복해집니다.



3일 국내 첫 캠페인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WeThe15 인지도를 높이고 캠페인을 확산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라색 점등 이벤트와 상업 파트너와 SNS 릴레이, 인식개선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해 #WeThe15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WeThe15 캠페인은 6대 목표를 설정했다. 장애인을 다양성·포용 의제의 중심에 두기, 향후 10년간 대 정부·기업·국민 활동, 장애인에 대한 사회·제도적 장벽 해체, 장애인 인식·가시성·대표성 보장, 장애의 사회적 모형 교육, 보조공학기술 적극 활용 등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전국 등록 장애인 1만명을 대상으로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4.2%였다. 4명 중 1명만 운동을 하는 셈이다.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장애인들이 운동에 참여하기 위한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게 현실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더 많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전 세계적 캠페인을 한국에서도 진행하게 됐다”며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사회 전반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계여자테니스협회가 1조 원 손실 보면서도 지키려 한 가치는?

세계여자테니스협회(WTA)가 중국과 홍콩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를 중단하기로 했다. WTA는 세계 랭킹 1위 복식 선수 평샤이가 중국 고위급 관리에 의한 성폭행을 폭로한 뒤 중국 정부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혹과 관련 “양심적으로 중국에서 토너먼트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걸려 있는 계약 규모는 10억 달러(약 1조 1800억 원)로 알려졌다. WTA가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감수기로 한 것이다.

스티브 사이먼 WTA 의장 겸 CEO는 1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내고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서 개최되는 모든 WTA 토너먼트의 즉각적인 중단을 선언한다”며 “평샤이가 밝힌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검열없는 완전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이먼 의장은 “지난달 2일 평샤이는 중국 고위 관리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폭로했다. 그 순간부터 평샤이는 성폭행과 관련해, 특히 힘 있는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평은 자신의 글에서 ‘알이 바위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불꽃에 이끌려 자멸을 부르는 나방이 되어도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다. 그녀의 힘과 용기를 존경한다”고 밝혔다.

평샤이는 지난달 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장가오리 전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집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평샤이의 폭로 글은 몇 분 만에 삭제됐고, 평샤이는 이후 2주가량 자취를 감췄다. 이에 중국 언론은 평이 베이징에서 열린 주니어 대회에 참석했으며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도 “평이 안전하고 건강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평샤이가 안전하다는 증거를 요구했고, 세계 각국의 운동선수들과 인권 단체 등이 평샤이의 안전을 걱정하는 메시지를 낸 뒤에야 평샤이는 이메일과 영상 통화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평샤이는 자신의 성폭행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고 뒤늦게 부인해, 중국 당국의 강요로 인해 성폭력 주장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사이먼 의장은 “평샤이가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 성폭력 주장을 철회하라는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양심적으로 어떻게 우리 선수들에게 중국에서 경기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2022년 중국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우리 선수들과 스태프 모두가 겪을 위험에 대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력자들이 여성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성추행 의혹을 일축할 수 있다면, WTA가 설립된 기반인 여성평등은 엄청난 후퇴를 겪을 것이다. 그런 일이 WTA 선수들에게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중국과 WTA는 시즌 최종전인 WTA 파이널스를 2030년까지 개최하게 되어 있다. 계약 규모는 10년간 10억 달러(약 1조1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WTA는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감수하기로 한 것이다. 손실을 감안하면 WTA의 결정은 스포츠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사이먼은 “경제적 손해를 따지기보다는 국제 사회가 평샤이와 모든 여성을 위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WTA의 이같은 결정에 스포츠계 인사들은 용감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테니스계 원로인 빌리진킹은 트위터에서 “WTA는 선수들을 지원하는 올바른 역사 편에서 있다”고 격려했고,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도 “돈보다는 원칙을 우선한 WTA의 용감한 결정”이라고 트윗을 날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서구 기업의 CEO들이 중국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일이 적을 뿐더러, 원칙 때문에 중국시장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일도 거의 없다”며 “WTA가 다른 스포츠 조직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중국 압력에 굴복했던) NBA 루트를 따를지 지켜봐야 한다”고 논평했다. 남자 투어를 주관하는 테니스전문가협회(ATP)는 평샤이 안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으나, 중국 경기를 보이콧하겠다고까지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코치가 훈련 중 학생 밀치고 욕설?...체육고교 가혹행위 논란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79419>

교보증권, 메타버스로 임직원 가상 체육대회 진행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59487/?sc=Naver>

울산시-남북체육교류협, 2022년 제103회 전국체전 '평화제전' 머리맞대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03\\_0001674287&cID=10814&pID=108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03_0001674287&cID=10814&pID=10800)

체육회 '학생 선수 훈련 참가 축소안' 전면 재검토 촉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55508&plink=ORI&cooper=NAVER](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55508&plink=ORI&cooper=NAVER)

2021 경기도체육상 대상...도쿄올림픽金 펜싱 김준호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02\\_0001673337&cID=10803&pID=140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02_0001673337&cID=10803&pID=14000)

국민체육진흥공단 카누선수단, 청소년 진로 체험 재능기부

<http://mksports.co.kr/view/2021/1114563/>

한국사회체육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한서대에서 개최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81803>

강남구, '2021 온택트 나홀로 도전 체육대회' 내달 개최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30\\_0001670551&cID=14001&pID=140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30_0001670551&cID=14001&pID=14000)

대한체육회 12월 3~9일 온라인 스포츠JOB콘서트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111300100225050015031&servicedate=20211130>

# 체육시민연대

##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